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의 극복경험에 관한 연구*

우 현 진 장 숙 희 권 호 인†

전주대학교

최근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 여성이 폭력의 시작부터 관계 단절까지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최근 3년 이내에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여대생 7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실시한 후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95개의 개념으로부터 43개의 하위범주와 17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데이트폭력 피해여성이 경험한 중심현상은 '폭력의 올라가미에 간헐'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가해자와의 단절 시도, 줄타기, 회복과 성장 단계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학대나 부재 등의 불안정한 양육환경, 심리적 및 경제적 의존으로 인해 관계에 간헐, 가해자의 과도한 보살핌이나 통제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것이 폭력을 경험하는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으로 나타났다. 폭력의 원인을 내재화하거나 자해 및 자살시도와 같은 행동이 가해자와의 단절을 방해하는 요인인 반면, 현실에 대한 직면과 외부 지지체계의 도움이 보호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의 과정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개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폭력, 피해자, 피해경험, 근거이론, 회복

* 본 논문은 우현진의 2017년도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재구성한 것임.

† 교신저자 : 권호인,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천잠로 303

Tel : 063-220-4666, E-mail : hikwon14@jj.ac.kr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은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예를 들면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KBC, 2016, 4, 11), 여자 친구를 살해한 후 시멘트에 압매장한 사건(한겨레, 2016. 3. 15) 등 언론 매체는 빈번하게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을 다루고 있다. 데이트 폭력은 범죄와의 관련성 뿐 아니라 폭력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많은 학자들은 데이트 폭력을 매우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이혜원(2015)은 결혼 전 교제기간 동안에 연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해를 끼칠 의도를 가지고 행한 정서적, 신체적, 성적 행위로, 박경민(2015)은 심리적·성적으로 친밀감이 있는 미혼 또는 기혼 성인 남녀의 데이트 파트너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체적 폭력 및 감정적·언어적·경제적 폭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데이트 폭력은 미혼의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며, 그 범위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폭력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박하나, 장수미, 201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결혼하지 않은 연인 관계에서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성적, 정서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경찰청은 매년 약 7천 건 이상의 데이트 폭력이 신고 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경찰청, 2016), 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발표한 2015년 운영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관련 상담 건수는 전년 대비 3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긴급전화1366, 2015). 이렇듯 최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과 도움요청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Straus, Hamby, Boney-McCoy와 Sugarman(1996)은 데이트 폭력의 유형을 심리적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심리

적 폭력은 상대방을 무시·비난하는 등 언어적인 폭력을 포함하며, 고함치거나 소리 지르기, 모욕적인 말과 행동하기, 비난하기,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신체적 폭력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입힐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는 것으로, 때밀기,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뺨때리기, 목조르기, 두들겨 패기, 발로 패기 등을 포함한다. 성적 폭력은 원치 않는 상대방에게 강제로 성 행위를 강요하는 것으로, 외모로 성적 평가하는 것, 신체를 밀착하여 접촉하는 것, 껴안거나 키스하는 것, 성관계를 강요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데이트 폭력의 발생은 매우 빈번한 양상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명 중 적어도 한 명 이상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고 한다(서경현, 이영자, 2001 재인용). DeKeseredy와 Kelly(1993)는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피해를 신체적 폭력 22.3%, 심리적 폭력 79.2%로 보고하였으며, Beyers, Leonard, Mays와 Rosen(2000)의 연구에서는 신체적 폭력 24.2%, 심리적 폭력 54.6%, 성적 폭력 39.6%로 나타났다.

한국 여성의 전화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 연령은 20대가 49.1%로 가장 높게 높았으며, 30대가 18.5%, 40대 6.5%, 50대 6.2%로 나타났다(한국 여성의 전화, 2009). 데이트 폭력 피해의 성차를 살펴보면,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2010)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성폭력 피해발생률이 남성에게 비해 약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 자료에서도 여성 피해자가 92%로, 남성 피해자보다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중 폭행 및 상해가 61.9%로 가장 빈번하였다. 그러나 일부 선행연구에 따르면 데이

트 폭력 피해 경험 빈도에 있어서 남녀의 차이가 없으나, 데이트 폭력 피해의 수준에서 여성이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서경현, 이경순, 2002). 이러한 결과는 신체적인 힘의 차이 때문으로 볼 수 있는데, 남성의 경우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거의 상해를 입지 않는 반면, 30% 이상의 여성들은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심한 외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Molidor & Tolman, 1998; 정윤주, 2008 재인용).

한 국내 연구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72.5%가 데이트 폭력 피해를 경험한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옥, 2001). 폭력 피해 이후에도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할 경우 폭력이 지속되면서 점차 강도 및 유형이 다양해지며 피해자는 이전보다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정혜숙, 2007).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의 심리적 후유증 또한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분노, 슬픔, 불안, 혼란감 등 부정적인 정서적 반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안귀여루, 2002; Simonelli & Ingram, 1998).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데(Vitanza, Vogel & Marshall, 1995), Sabina와 Straus(2008)는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의 31%에서 84%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고통 받는다고 보고하였다.

데이트 폭력의 발생에 기여하는 요인에 대해 사회학습이론과 여성주의이론을 각기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사회학습이론에서는 부모의 폭력에 대한 관찰학습이 데이트 폭력의 가해와 피해 가능성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한다(Smith & Williams, 1992). 반면 여성주의이론에서는 모든 종류의 학대는 가부장적 가치체계

내의 권력과 통제에 대한 것이라고 주장한다(Lloyd, 1991). 한 예로 Follingstad, Wright, Lloyd와 Sebastian(1991)은 데이트 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은 가해자의 동기가 권력 및 통제와 관련있다고 인지한 반면, 남성피해자들은 이러한 동기를 인지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한편 Stets(1991)는 가부장적인 구조적 통제보다는 대인관계 통제욕구가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에 내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다.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폭력에 대한 허용도(김예정, 김득성, 1993), 신체적 폭력의 예측 요인(신혜섭, 2007), 나이, 성별, 음주, 공격성 및 분노 등과 개인변인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강희경, 2007;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송만익, 박상준, 2000; 이은혜, 이초롱, 현명호, 2009; 장희숙, 조현각, 2001; 조현각, 2001)들과 가정폭력 경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서경현, 2004; 신혜섭, 양혜원, 2006), 부모로부터의 가혹한 처벌이나 폭행이 피해나 가해에 주는 영향(서경현, 2004) 등으로 성장 시기 가정 폭력의 직·간접적 경험 및 데이트 폭력의 관련성을 밝힌 연구가 대다수이며, 주로 양적 방법론에 치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을 통해서는 실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이 어떤 경험을 하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파악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더욱이 데이트 폭력을 경험하고 이를 극복하는 것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지속되는 역동적 과정이므로 질적 연구를 통해 그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20대 여성은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 빈도가 가장 높은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법을 활용하여 피해자들의 데이트 폭력 경험의 극복 과정과

맥락적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 경험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근거이론을 채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를 다룬 연구는 매우 제한되어 있으며, 특히 피해자들이 데이트 폭력을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 밝힌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현상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근거 이론 방법을 채택하였다. 둘째, 근거이론 방법은 개인의 심리·사회적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에 적합한 방법론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은 예민하고 복잡한 경험이며 양적 연구로는 그 경험을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의 경험을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적합한 방법론이 근거 이론이라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 여성들의

극복 과정은 어떠한가?”

둘째 “이 극복과정에서 주요하게 작용하는 요인들은 무엇인가?”

방 법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이었다. 본 연구자들은 J시에 위치한 4개 대학의 건물 및 온라인 커뮤니티에 홍보 문구를 게시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다. 먼저 연구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밝히고 연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메일과 문자를 통해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였다. 참여자 선정 기준은 첫째, 미혼으로 만 19세 이상인 성인 여성인 경우 둘째, 연인 관계 내에서 폭행·감금·협박 피해를 경험한 경우 셋째, 회상의 용이성을 위해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3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하였

표 1. 연구 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o	성별	연령	피해유형	교제 기간	교제 후 폭력발생 시기	가정환경 특징
1	여	20	성, 언어, 신체폭력	3년 1개월	4개월 후	폭언 및 심한 체벌 경험
2	여	22	스토킹, 성, 신체, 언어폭력	1년	3개월 후	부모 이혼 및 방임
3	여	28	성, 언어, 협박, 신체 폭력	5년	4개월 후	심한 체벌 경험
4	여	23	성, 통제, 감시, 언어폭력	3년	1개월 후	조손가정
5	여	22	협박, 언어, 통제, 감시, 스토킹, 신체폭력	3개월	교제시작 직후	어린 시절 부모의 방임
6	여	28	성, 언어, 신체 폭력	3년	4개월 후	-
7	여	23	협박, 통제, 감시, 성, 스토킹, 언어폭력	10개월	사귀기 전	조손 가정

다. 선정 기준에 적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차 만남을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으며, 모든 설명을 듣고 최종적으로 연구 참여의사를 밝힌 여대생 7명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은 면담에 참여 한 후 소액의 인터뷰 비용을 제공 받았다. 연구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23.7세이며 자세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평균 교제 기간은 약 2년 6개월이었으며, 처음 폭력이 발생한 시기는 대부분 교제 후 4개월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이 경험한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적 폭력은 모든 참여자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 폭력이 6명으로 언어적 폭력 다음으로 빈번하였고, 신체적 폭력 5명, 감시, 통제, 협박 및 스토킹 피해는 각각 3명으로 나타났다. 참여자 모두 3가지 이상의 폭력을 경험 하였다. 폭력은 경미한 수준에서 시작하여 점점 심해지는 양상이었는데, 대개 언어적 폭력 혹은 통제·감시·집착으로 시작하여 이후에는 성폭력과 신체폭력으로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들 대부분은 가해자에게 헤어지자고 통보한 이후에도 스토킹 및 협박을 받으며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절차

자료 수집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진행하였으며 장소는 대학 내 개인상담실 혹은 조용한 카페였다. 면담은 1~2회였으며, 1회당 면담시간은 약 70분에서 100분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시작 전 참여자에게 인터뷰 녹음과 비밀보장에 대한 것,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원치 않을 때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한 후 서면 동의서를 작성하고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후 개인정보는 모두 삭제하고 번호를 사용하여 자료를 구분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소속대학의 기관윤리위원회의 승인(#jjIRB-161015)을 받았다. 면담은 테이트 폭력에 대한 경험과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의 느낌, 생각, 행동 등에 대하여 비구조화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하였다. 면담 질문은 ‘상대방과는 어떻게 만나게 되었나요?’로 시작하였으며, ‘처음 사건이 발생한 건 언제인가요?’, ‘그 사건에 대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야기해주세요’ 등의 질문을 사용하였다.

연구의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Guba와 Lincoln(1985)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truthvalue), 적용가능성(applicability), 일(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측면(박승민 외, 2012 재인용)을 기준으로 연구의 엄밀성을 평가하였다. 사실적 가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분석 과정을 마친 후 연구 참여자들에게 결과를 알려주고 개념 및 범주에서 자신의 경험이 잘 나타났는지 자료 해석은 정확한지에 대해 확인받는 과정을 거쳤다. 둘째, 적용가능성을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참여자들과 유사한 테이트 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1인에게 결과를 설명하고 본인의 경험에 비교해 보았을 때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셋째, 일관성을 충족하기 위해 원 자료를 분석한 개념 및 범주를 근거이론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논문작업을 수행한 적이 있는 상담심리학 박사 1인과 상담심

리학과 교수 1인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상담심리 전문가 1인에게 결과의 적절성에 대해 자문을 받아 검토 및 수정하는 작업을 하였다. 넷째, 중립성을 충족하기 위해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와 분석과정을 따랐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하여 연구자의 가치관, 편견 등을 배제하여 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드러내려고 하였다.

결 과

본 연구는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여 면담자

료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95개의 개념과 43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7개의 범주를 도출하였다. 그 내용은 표 2와 같다.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범주 분석

인과적 조건

인과적 조건(casual condition)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이다(Strauss & Corbin, 1998).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제대로 된 양육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부모가 양육에 관심이 없어 부모와 함께 살지 못했거나, 부모가 어린 시절부터

표 2. 개념 추출 및 범주화 결과

개 념	하위 범주	범주
내가 왜 태어났을까 어머니를 많이 원망함		
아버지와 곁도는 관계	부모가 양육에 관심이 없었음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
아버지에게 술 문제가 있음		
부모가 화가 나면 폭언과 욕설을 함	양육자가 폭력을 가함	
주요 양육자로부터 심한 체벌을 경험함		
가해자의 강요에 의해 의견이 무시된 채 성폭행을 당함	억압된 채 성관계를 가짐	
신체를 제약당한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함		
가벼운 괴롭힘 정도로 폭행이 시작 됨	신체적 폭행을 당함	가해자가 테이트 폭력을 가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폭행을 함		
주변 물건을 부수며 위협을 가함	가해자가 위협을 주는 행동을 함	
화를 내며 욕설을 함		
SNS, 메신저를 감시함	나에게 지나치게 집착을 함	
남자 선배 및 동기와 얘기만 나눴도 욕하는 모습을 보임		
애정표현을 많이 들음	나에게 넘치는 애정표현을 함	과도한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함
선물 공세를 받음		
나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잘해줌	보살핌을 받음	
마치 아빠같이 나의 생활을 돌봐줌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 할 수 없다는 두려움으로 헤어지지 못함		
혼자 잘 살아갈 수 있을지 막연하고 불안함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의 부족	혼자서 헤쳐나갈 자신이 없어 관계에 간힘
혼자라는 외로움에 관계를 유지함		
폭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구들과 거리를 두게 됨	친구와 멀어지며 고립됨	
남자친구로 인해 주변에 친구가 없음		

표 2. 개념 추출 및 범주화 결과

(계속 1)

개 념	하위 범주	범주
늘 순종적으로 가해자를 따라야만 했음	순종하지 않으면	폭력의 올가미에 갇힘
가해자가 원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폭행이 심해짐	폭행이 더 심해짐	
잘해줬던 가해자의 모습이 폭행에 대한 기억을 잊게 함	잘해주는 모습에 폭행	
가해자가 폭행 이후 나에게 더 잘해줌	기억을 잊음	
가해자가 바뀔 거라는 생각으로 관계를 지속함	가해자가 변할 거라는	
안쓰러운 상대방을 위해 뭔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함	희망을 가짐	
무서움으로 반항 할 생각도 못하고 성관계를 받아줌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가해자의 반복되는 폭행에 대해 체념함	길들여짐	
나의 성적 결정권이 철저히 무시당함		
가해자와의 생활이 힘들어 자해를 함		
자신의 상황을 끝내고 싶은 마음에 자살 생각을 함	괴로움을 버티기 위해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 혼자 발버둥 칩
매일 술을 마시며 나의 상황을 버텨	나에게 상처를 입힘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며 합리화를 함		
가해자가 반복적인 폭행의 원인을 내 탓으로 돌림	폭력의 원인을 내재화 함	
친구 커플의 모습을 보며 잘못된 것을 인식함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당면한 현실을 직면함
다른 이성을 통해 내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느낌	현실을 바로 보게 됨	
임신에 대한 두려움으로 도망갈 힘이 생김	불안한 미래로 헤어질	
암담할 것 같은 편한 미래가 아닌 다른 선택을 하기로 함	결심을 함	
가족의 조언에 헤어질 생각을 함	타인의 도움으로	
의사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함	정신을 차림	
주변 사람들의 지지에 힘입어 가해자에게서 도망침	관계 단절을 위해 도망침	짓눌린 삶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함
가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에 집에서 도망침		
가해자가 자해하며 내가 떠나지 못하게 협박함	헤어지자는 말에 협박을 받음	가해자의 반격으로 인해 끌려 다님
헤어지자고하자 가해자가 죽겠다고 함		
관계단절 후 가해자가 사과하며 매달리는데 받아주지 않자 태도가 돌변하며 협박함	가해자가 놔주지 않음	
이별 후 벗어나지 못하게 스톱킹을 하며 매달림		
끊임없이 찾아와 협박을 함		
가해자의 자해 시도를 막기 위해 떠나지 못함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다독임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됨
가해자를 다독이며 그 상황을 넘어감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해자의 요구를 받아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도움을 청하지 못함	
타인의 시선이 무서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됨		
폭행 피해 사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나를 갉아먹는 거라는 창피함에 숨기게 됨		
자존감이 낮아지며 나 자신을 잃어감	무기력해짐	
뭘 해도 톱 막히는 것처럼 느껴짐		
나보다 더 잘 지내는 상대방의 모습에 무기력해짐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림		
그동안 내가 했던 대응들을 비난함	계속해서 자책하게 됨	

표 2. 개념 추출 및 범주화 결과

(계속 2)

개 념	하위 범주	범주
폭행 상황에서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	폭행 상황에서 도움을 받음	적극적으로 도움요청을 함
폭행을 목격한 사람의 도움을 받음		
신고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도움을 받지 못함	경찰에게 한 도움요청이 좌절됨	곧래 밖으로 탈출함
인력부족으로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함		
가해자의 연락을 끊기 위해 번호를 바꿈	가해자가 할 수 있는 연락 방법을 차단 함	건강한 이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함
SNS와 메신저를 탈퇴함		
가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빠르게 집을 정리함	가해자와 관련된 내 주변을 정리함	
주변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고 내 세상에서만 살려고 함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 낼 방법을 스스로 찾아 봄	애써 잊으려고 함	
혼자 할 수 있는 힘을 키워 나감		
고통스러운 옛 기억을 좋은 추억으로 대체하려 함	폭행 기억을 잊기 위해 노력함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노력함		
울면서 억눌렀던 것들을 품	억눌렀던 걸 풀기 위해 노력함	
관계 단절 이후 폭행 사건이 떠오르면 욕을 하며 해소함		
폭행 사건을 겪고 나서 동일 피해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됨	위로 받고 연대감을 느낌	외부 도움을 받아 딘고 일어섬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 위로 받음		
상담을 통해 자신의 불안을 줄여나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음	
병원생활로 나의 생활이 많이 변화됨		
고통스러운 경험으로 외부 환경에 대해 경계심을 갖게 됨	보복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감	항상 따라다니는 불안 속에서 살아감
헤어진 후 가해자의 보복에 대해 두려움을 지니고 살아감		
안전한 환경에서도 경계를 늦추지 못함	꿈에서도 고통을 당함	
악몽을 많이 꾸게 됨		
꿈과 현실의 경계가 혼란스러워 짐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갑자기 폭행 상황이 생생하게 재연 됨		
떠오른 폭행 상황을 애써 잊으려 노력함	이성과 거리두기	새로운 이성 관계 맺음이 주저됨
가해자와 닮은 사람을 보면 피하게 됨		
이성과 거리를 두게 됨	이성의 스킨십을 피하고 거부하게 됨	
이성의 의도가 순수하게 느껴지지 않음		
타인의 스킨십에 흠칫 놀라며 피하게 됨	새로운 연애의 어려움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스킨십을 피하게 됨		
호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이성의 접근이 부담스럽고 혐오스럽게 느껴짐	나를 돌아보게 됨	고통 속에서 성장함
더 이상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음		
나를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 생각하게 됨	대견함에 스스로 칭찬함	
자기 성찰을 하게 됨		
가해자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에 스스로 칭찬을 함	스스로 칭찬함	
결국은 옳은 선택을 했기에 나 스스로가 대견함		

심한 체벌과 욕설 혹은 폭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인과조건은 참여자들이 가해자와 교제를 시작하고 가해자가 폭력을 가하는 것이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견을 무시당한 채 성관계를 강요당하거나, 신체적 폭행과 심한 욕설을 들었다. 또한 가해자의 위협과 더불어 지나친 집착과 감시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인과조건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함’, ‘가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가함’으로 명명하였다.

“엄마를 엄청 원망했어요. 이럴 거면 날 왜 낳았는지. 어릴 때 계속 혼자 집에 있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영양실조 걸리고, 그때 제가 너무 무서워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엄청 무섭다고, 살려달라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랑 살고 있어요.” (참여자7: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함)

“저는 아침에 학교를 가야해서 자고 있었는데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데, 자기 오는 거 기다리지도 않고 자나고, 그래서 제가 아침수업이라서 피곤해서 그랬다고 다음부터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화를 내면서 강제로 성관계를 했어요. 제가 화를 내도 강제로 했어요. 그런데 제가 힘이 없으니깐 그냥 끌려갔어요. 그냥.” (참여자2; 가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가함)

“한번 막 저를 때리는데 제가 막 저항하니깐 넥타이 끈으로 저를 묶는 거예요. 묶고 목 조르고, 한참 목을 졸랐어요. (중략) 그냥 거의 어떤 식으로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때렸어요. 손으로 때리고 밟고 그렇게 많이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면서도 잘못했다고 하고” (참여자6; 가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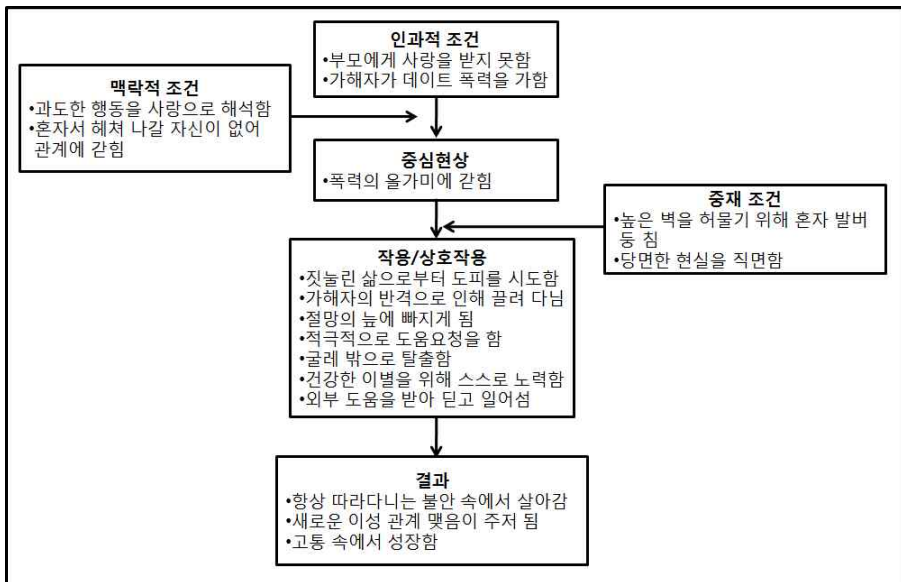


그림 1. 데이트 폭력 경험 과정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

“물건을 부셨어요. 옆에서 제가 다칠 뻔 했는데 향초 큰 거가 있는데 막 휴대폰으로 제 여기(얼굴 쪽 가리키며) 지나가게끔 던져서 향초를 깨지게 하고, 제가 놀라서 뭐라고 하니깐 막 뭐라고 욕을 하다가 갔다 와서 하자고 하면서 치우라고 그래서 치우다가 막 그랬던 적도 있고. 거의 막 욕하면서 승질내고 웬만하면 주변 물건을 때렸는데” (참여자2; 가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가함)

중심 현상

중심 현상은 ‘여기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일련의 작용/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중심 생각이나 사건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폭행 이후 더 잘해주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며 폭행의 기억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가해자가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는 생각으로 참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해자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폭행이 더 심해졌으며 그 무서움으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가해자의 행동을 다 받아 주었고 이러한 상황이 반복 되면서 가해자에게 길들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폭행이 더 심해짐’, ‘잘 해주는 모습에 폭행 기억을 잊음’, ‘가해자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가짐’,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길들여짐’이라는 하위 범주와 ‘폭력의 올라미에 간함’이라는 범주로 추상화 하였다.

“제가 하지 말라고 말리면 거기에 대한 때림이 더 많았어요. 주로 손이나, 머리, 어깨 같은 다리는 한쪽 발로 막고 때렸어요. (중략)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뭔가 제

가 반박을 할 때 그거에 대해 우발적이었던 게 더 컸어요. 그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가 내뱉은 주장에 대해 제가 ‘그게 아니야, 그건 좀 아닌 거 같은데’라는 식으로 말이 나가면 그니까 어찌 보면 무시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참여자1; 순종하지 않으면 폭행이 더 심해짐)

“다음날 찾아왔을 때는 꽃을 사서 온 거예요. 어제랑은 너무 다르게.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다고 자기가 잘하겠다고, 집 데려다 주겠다고” (참여자4: 잘해주는 모습에 폭행 기억을 잊음)

“솔직히 말하자면 헤어지는 것도 망설였던 거 같아요. 웬지 모르게 미안해서 내가 더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조금 고쳐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 어느 순간 마음 정리는 돼있었는데 약간의 그런 정? 때문에.” (참여자1: 가해자가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가짐)

“거절을 하면 막 왜 그러냐, 내가 너한테 다 해주는데 그게 그렇게 싫으냐? 싫고 나가고 싶냐? 그러면 나가버리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말하니깐, 너 말고 여자가 없는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내가 여자가 없어서 널 데려온 줄 아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깐 제가 그 말에 충격을 받아서 반항도 안하고 그냥 받아줬던 것 같아요.” (참여자2: 철저하게 무시당하며 길들여짐)

맥락적 조건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s)은 현상에

미치는 특수한 조건들로 가족·사회·문화적 배경과 연결되어 있다(박승민 외, 2012). 참여자들은 가해자로부터 폭력이 시작된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면서 폭력의 올라가며 간히는 중심현상을 보였는데, 그 맥락에는 가해자의 과도할 정도로 잘해주는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하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던 참여자들은 가해자의 폭력에도 넘치는 애정 표현과 선물공세,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마치 아빠같이 보살펴 주는 가해자를 선택 떠나지 못했다. 또한 일상의 많은 부분을 가해자에게 의지하게 되면서 가해자를 떠나서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며, 외로워질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폭행을 견디게 되었다. 스스로도 폭행이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지만, 가해자를 떠날 수 없기에 폭행을 당하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변 사람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그로 인해 가해자와의 관계에 간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과도한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함’, ‘혼자서 헤쳐 나갈 자신이 없어서 관계에 간힘’으로 명명하였다.

“진짜 이런 사람이 또 있을까 할 정도로 주변 친구들도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남자라면 결혼도 해도 되겠다, 그런 남자라면 내가 사귀만하겠다 그런 식으로 할 정도로 진짜 잘해줬어요. 선물도 진짜 많이 사주고 마치 날 사랑한다는 걸 선물로 표현한 것 같아요.” (참여자5: 과도한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함)

“헤어지고 싶은데 헤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저는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그 사람

이랑 만났고, 그 사람이 모든 걸 컨트롤 해 와서 그 사람 없으면 제가 혼자서 될 못하겠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자친구가 저의 생활 관리를 해주다 보니깐 잘 모르겠어요.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란 그냥 막연하게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참여자4: 혼자서 헤쳐 나갈 자신이 없어서 관계에 간힘)

중재적 조건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s)은 인과조건과 맥락조건에 해당하는 여러 조건이 현상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며 작용과 상호작용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조건들이다(Strauss & Corbin, 1998). 참여자들은 반복되는 폭행으로 인해 폭력의 원인을 내재화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자해를 시도하거나, 자살을 끊임없이 생각하기도 하고 혹은 매일 술을 마시는 등 자신에게 상처를 입히는 방법으로 상황을 버틴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 혼자 발버둥 침’으로 명명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건강해 보이는 다른 커플이나 자신을 존중해 주는 다른 이성과의 만남, 가해자와의 미래가 암담하다는 생각을 통해 자신의 현재 상황을 바로 보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외부 지지체계의 조언이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당면한 현실을 직면함’으로 명명하였다.

“사실은 죽고 싶어서 좀 창밖을 본다던가, ‘자살할까?’하면서 창문 쪽으로 가거나 실제론 용기는 없으면서 그냥 자살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평소에 웃지도 않고 근데 그걸 티내면 안 되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시면 안 되고, 이분들은 보수적이

라서 날 이해 못해줄 것 같고, 오히려 화만 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들리면 안된다. 그런 생각만 하고, 그리고 부모님 아프게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절대 아무한테도 들리면 안 되고, 자살하고 싶다.” (참여자7: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 혼자 발버둥 치)

“제가 같은 과 친구랑 제일 친한 친구랑 룸메이트를 했는데 그 친구도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음 그런데 보이잖아요. 그 남자친구가 친구한테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그거랑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게 좀 큰 계기가 됐었어요.” (참여자4: 당면한 현실을 직면함)

작용/상호작용 전략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은 경험하고 있는 중심현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박승민 외, 2012). 참여자들은 ‘폭력의 울가미에 갇힘’이라는 중심 현상을 다루기 위해 여러 행위를 했는데 우선 짓눌린 삶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참여자는 가해자의 지속적인 만남 요구 그리고 자해와 죽겠다는 협박에 끌려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던 참여자들은 더 이상 혼자 감내하지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제 3자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움 요청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좌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한 참여자들은 가해자와의 완전한 관계 단절 방법을 모색한다. 참여자들은 연락처 변경, SNS와 메신저 탈퇴를 통해 가해자의 연락을 차단하고, 가해자가 알고 있는 주변인과 거주지 등을 정리하였던 것으로 나

타났다. 참여자들은 마침내 가해자의 굴레 밖으로 탈출한다. 이후 건강한 이별작업을 시도하고 적극적으로 외부의 도움을 받아 일어섰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짓눌린 삶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함’, ‘가해자의 반격으로 인해 끌려다님’,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됨’, ‘적극적으로 도움요청을 함’, ‘굴레 밖으로 탈출함’, ‘건강한 이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함’, ‘외부 도움을 받아 딛고 일어섬’으로 명명하였다.

“이제 그만하자고, 나 돌아버릴 것 같다고 그러니깐 또 승질을 내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전 이때가 기회다 싶어서 당장 짐을 싸죠. 그냥 짐을 다 빼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도망을 가서는 전화랑 문자랑 카톡이랑 엄청 왔었어요. 이게 무슨 경우냐고 하면서, 넌 예의라는 게 없는 애냐고, 인간 맞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막 집 앞에서 기다린다고 협박도 하고 막 그러 길래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참여자2: 짓눌린 삶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함)

“그때 헤어지려고 그랬냐고 하면서 그 편의점 가서 소주를 가지고 와서 원샷하고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그 0000에서, 사람도 그렇게 많은데 옷 싹 벗고 소주 원샷 하더니 소주병 벽에 쳐서 깨트려서 그걸 들고 지 손목을 긋는 거예요. 너 내가 죽는다 하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계속 그러면서 어디 한번 보래요 내가 죽나 안 죽나. 그래서 그냥 아 망했다 싶었죠” (참여자5: 가해자의 반격으로 인해 끌려 다님)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기댈 사람도 없

어서 매번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울기만 하고, 아무 것도 하기 싫었어요.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때 항상 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는 밖에서는 나를 괴롭히고, 학교에선 모르는 척 친구들과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은 있는 걸까?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하나 그런 생각하면서 진짜 많이 무기력해졌어요.” (참여자7: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됨)

“그래서 경찰한테 같이 집을 거주면 안 되냐, 아니면 주변에 순찰을 돌다가 개가 나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면 개를 데리고 거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뭐지? 그 지원 인력이 부족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남자 경찰관들은 저를 이해를 못하고 그럴까봐 저희가 여성 경찰관님 계시냐고 해서 여성 경찰관님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주셔서 통화통화를 했는데도 결과는 좋지 않았어요. 좀 이해해주실 줄 알고 여성이랑 통화를 한 건데.” (참여자5: 적극적으로 도움요청을 함)

“과 애들이랑 다 친구 추가 되어있고, 복학생 오빠들도 다 친구 추가가 되어있었는데 그 오빠들이랑 다 끊고 SNS 친구 다 삭제하고 다 인연 끊고 막, 오직 나 혼자만. 그냥 제 세상에서만 살려고 했어요.” (참여자7: 골레 밖으로 탈출함)

“다녀와서 좀 무서웠죠. 한국에 도착해서도 좀 개강하기 전까지는 좀 피해 다니고 나갈 때도 모자를 쓴다던가, 가리거나 그런 식의 행동을 했고, 억지로 운동도 다

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밝은 분위기. 그 사람이 올 수 없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운동도 막 하고 호신술 이런 것도 배워볼까 생각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여자2: 건강한 이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함)

“그렇게 친한 친구는 아닌데 저처럼 남자관계에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개가 먼저 고민을 털어 놓길래 나도 이래서 중요한 얘기는 건너뛰고 ‘스토킹 비슷한 걸 경험한 것 같다, 무섭다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이러니깐 조심하라고 위험하지 않냐고 자기가 같이 다녀주겠다고 이렇게 생각보다 저를 위해주는 말을 해주고 애가 진심이 느껴져서 좀 무섭다고 얘기를 해서 친구가 상담을 받아 보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해서 상담실에 갔는데 상담선생님이 잘 왔다고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셔서 뭐 증거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고, 한번쯤 신고를 해도 괜찮다고, 그리고 비밀보장 다 된다고 그러면서 불안감이 좀 줄었었죠.” (참여자2: 외부 도움을 받아 딛고 일어섬)

결과

결과(consequences)는 어떤 현상에 대처하거나 다루기 위해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들을 수행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이다(Strauss & Corbin, 1998). 참여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단절에 성공한 이후에도 다시 가해자가 찾아올 것 같은 두려움으로 인해 늘 주변을 경계하며 생활하고, 자주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으며, 일상생활을 하면서 폭행 상황이 자주 생생하게 재연되는 등 늘 불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항상 따라다니는 불안 속에서 살아감의 범주로 추상화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은 폭행 경험으로 자신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이성에게 혐오스러운 감정이 들기도 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지만 스킨십을 회피하거나, 혹은 더 이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 연애를 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성 관계 맺음이 주저됨’의 범주로 추상화 하였다. 한편 참여자들은 피해 경험을 통해 후유증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 속에서도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힘든 경험을 통해서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고,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가해자와 헤어진 것에 대해 스스로 칭찬하고 대견해하였다. 이로 인해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또 몰랐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계기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통 속에서 성장함’의 범주로 추상화 하였다.

‘고백을 받은 적이 있는데 조금 혐오스럽더라고요. 원래는 남자사람친구랑 거리낌이 없었고 오히려 동성, 이성 가리지 않고 잘 지내고 싶은데 친하게 지내면 좋은 건데, 친구로 지내는 건 괜찮다가 뜬금없

이 고백을 하니깐 막 소름끼치고, 그 사람이 좋았다가 막 나빠 보이고, 혐오감이 많이 생겼어요. 남자 자체에 대해서 혐오감이 많이 생기고.’ (참여자2: 새로운 이성 관계 맺음이 주저됨)

‘그리고 이런 생각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나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하지 말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어요.’ (참여자4: 고통 속에서 성장함)

과정분석

과정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결을 의미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을 피해자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과정을 4단계인 ‘시도 단계’, ‘줄타기 단계’, ‘회복 단계’, ‘성장단계’로 구분하였다. 각 과정이 순서대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오랜 시간 지속 된 후 다음 단계로 진행되기도 하고, 다시 이전 단계로 돌아가기도 하며, 동시에 중복되어 나타나기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다. 이 과정의 단계는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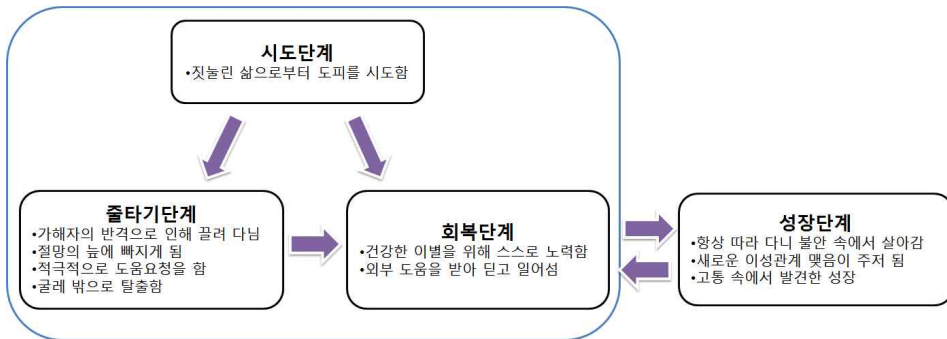


그림 2. 데이트 폭력 경험에 대한 과정분석

시도 단계. ‘시도 단계’는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시도를 하는 첫 번째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이 단계에서 자신의 현재 상황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관계임을 깨닫고 힘이 생겨 가해자로부터 도망친다.

줄타기 단계. ‘줄타기 단계’는 벗어났던 가해자로부터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인해 계속해서 끌려 다니는 단계이다. 가해자는 참여자들 앞에서 자해 및 자살 시도를 하였으며 결국 참여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지속하였다. 계속 반복되는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자책하고, 무기력해진다. 그러던 중 참여자들은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마음에 지인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나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가혹한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해자가 접촉해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완전한 관계단절에 성공한다.

회복 단계. ‘회복 단계’는 가해자와 완전한 관계 단절 이후 폭행 경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이다. 참여자들은 어렵게 가해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지만 폭행당한 외상으로 불안과 두려움은 지속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바쁘게 생활하고, 긍정적인 경험을 통해 폭력의 기억을 잊고 좋은 기억으로 대체하기 위해 노력하며 극복해간다.

성장단계. ‘성장 단계’는 데이트 폭력 경험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 힘듦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벗어난 자신을 칭찬하고 대견해하며 자기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는 단계이다. 폭행 경험으로 인해 남자를 거부하게 되고, 이로 인해 새로운 연애에 대해 자신 없어 한다. 그러나 힘든 상황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 대견해 하며, 그 상황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혼자 힘으로 벗어났다는 것에 칭찬을 하기도 하고,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는 등 한층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논 의

본 연구는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이 폭력의 시작부터 관계를 단절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인과적 조건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함과 가해자가 데이트 폭력을 가함’이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가정폭력을 경험했거나, 부모의 방임과 부재 등 안정적 양육을 경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성인기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는 상대방으로부터의 성폭력의 피해 경험 확률을 높이며(Desai, Arias, Thompson & Basile, 2002), 부모의 학대경험과 데이트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김예정, 김득성, 1999b; Riggs와 O’Leary, 1996; 신혜섭, 양혜원, 2005)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들은 신체적 폭력, 성폭력, 언어폭력 등 여러 유형의 데이트 폭력을 종합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폭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처음 참여자들은 강제적인 성관계를 데이트 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연인관계에서 친밀도가 높을 경우

강제적인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선행연구(Warshaw, 1998)의 결과를 뒷받침 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의 중심 현상은 '폭력의 울가미에 간함'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폭력을 경험했지만 가해자에게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폭력 안에 갇히게 된다. 참여자들은 데이트 폭력이 있는 후에도 다시 잘해주는 가해자의 모습에 폭력적인 모습을 잊어버리거나, 다시 자신이 조금만 노력하면 잘해줬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트 폭력에 노출 된 후 객관적 사고력이 저하된다는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2007)의 연구 결과와 피해자들이 폭력을 경험한 이후 자신의 노력 및 희생이 파트너의 폭력적인 모습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지 변화를 보인다는 강효진(2009)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의 맥락적 조건은 '과도한 행동을 사랑으로 해석함', '혼자서 헤쳐 나갈 자신이 없어 관계에 간함'이다. 참여자들은 가해자로부터 폭력을 경험하지만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혼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 계속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폭력을 경험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더 의존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강효진, 2009), 관계에 의존적인 여성일수록 관계를 중단하지 못한다는(Henderson, Bartholomew & Dutton, 1997; Painter & Dutton, 1985) 선행 연구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참여자들의 의존성은 폭력을 지속시키고, 관계단절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중재 조건은 '높은 벽을 허물기 위해

혼자 발버둥 치м', '당면한 현실을 직면함'이다. 이러한 결과는 이화영(2014)의 연구에서 대부분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황을 직면하면서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이 과정에서 지지체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도 일치한다.

다섯째, 작용/상호작용은 '짓눌린 삶으로부터 도피를 시도함', '가해자의 반격으로 인해 끌려 다님',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됨', '적극적으로 도움요청을 함', '굴레 밖으로 탈출함', '건강한 이별을 위해 스스로 노력함', '외부 도움을 받아 딛고 일어섬'이다.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관계를 중단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폭력과 협박이라는 이화영(2014)의 연구 결과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가해자와의 관계단절을 시도하지만 가해자들은 끊임 없는 협박과 스토킹 등으로 참여자들을 놔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관계 단절 시도 이후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상담소나 병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는 이화영(2014)의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이 관계단절 과정에서 부모님, 친구, 상담소, 경찰 등의 지지체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여섯째, 결과로는 '항상 따라다니는 불안 속에서 살아감', '새로운 이성 관계 맺음이 주저됨', '고통 속에서 성장함'이다. 피해자들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났지만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있는 폭력에 간혀 불안, 고통,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는 피해자 피해자들이 외상 뿐 아니라 다양한 정서적 손상을 겪게 되고(안귀여루, 2002; Simonelli & Ingram, 1998),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Vitanza, Vogel & Manshall, 1995)와 일치한다. 피해자들은 특히 새로운 이

성관계의 형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은 데이트 폭력 경험을 토대로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이화영(2014)과 정운주(2008)의 연구 결과와 일치된다.

본 연구는 근거이론 접근 방법을 활용하여 데이트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알아보았다. 폭력 피해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폭넓게 볼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론인 근거이론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경험을 총체적이고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폭행이 진행되는 동안 폭력을 내재화하면서 자해와 자살시도 등의 위험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해자 개입 시 이러한 행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여자들은 가해자와의 관계를 단절한 이후에도 폭력에 대한 침습적 기억과 더불어 새로운 이성 관계에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관계 단절 후 개입에 있어서는 외상적 기억에 대한 치료적 개입 및 대인관계 변화를 다루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가정 폭력과 방임 등의 부적절한 양육이 데이트 폭력의 위험요인으로 나타난 점을 감안할 때,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가정 폭력을 예방하는 사회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정폭력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폭력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예방교육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한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위로받고 연대감을 느끼

는 것이 데이트 폭력을 극복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감안할 때 피해자 자조집단, 집단 상담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사회에서는 최근에야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많은 참여자들이 어떤 것이 데이트 폭력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데이트 폭력의 개념을 알리고, 건강한 사랑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대중적 캠페인을 통해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더 심한 폭력을 경험하기 이전에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참여자들은 가해자의 보복과 협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참여자는 한명 뿐이었다. 참여자들은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답변에 자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절망했다고 하였다. 최근 경찰은 전국에 데이트폭력 근절 특별팀을 설치하고, 112 시스템에 데이트폭력 코드 신설, 전담 수사위원 도입, 위치추적 장치 대여 등 강력한 대응방침을 발표했다(경찰청, 2016). 과거에 비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자들은 증거 불충분,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인 경찰 지원의 확대,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보호, 경도의 피해를 신고했을 때 2차 피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데이트 폭력을 비롯한 다른 폭력 피해자들이 사회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여러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많은 피해자들은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자신이 겪은 일들이 알려질까 봐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피해자들을 위한 여러 지원이 마련되어, 피해자들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표현하였다. 사회에서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을 비롯한 여러 방안들이 많이 생기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참여자는 특정 지역에 거주하는 여대생 7명으로, 소수의 연구 참여자만이 포함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의 보다 많은 참여자를 포함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질적 연구라는 특성 상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양적연구를 진행하여 추가 검증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모든 유형의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다보니, 개별 폭력 유형의 특성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폭력 유형에 따른 특성을 구분하여 세밀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시작 시점부터 관계 종결과 이후 결과에 초점을 두다보니, 데이트 폭력이 발생한 관계 양상 및 갈등, 발생을 촉발하는 단서들에 대해 자세히 다루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기 전의 맥락적 단서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효진 (2009). 폭력적인 데이트 관계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피해 여성을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희경 (2007). 대학생의 가족 폭력에 대한 인식과 데이트 폭력. 청소년학연구, 14(6), 21-41.
- 김예정, 김득성 (1993). 지속적 이성교제에서의 갈등표출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1(2), 127-139.
- 김예정, 김득성 (1999a).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 대학가정학회지, 37(10), 27-42.
- 김예정, 김득성 (1999b).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I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3), 187-202
- 김현옥 (2001).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이성교제와 교제폭력의 실태에 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경찰청 (2016). 연인 간 폭력(데이트 폭력). 경찰청
- 경찰청 (2016). 연인 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 신고기간 1개월간 운영 결과. 경찰청
- 박경민 (2015).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도 차이-가해자·피해자 입장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민, 김광수, 방기연, 오영희, 임은미 (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과정. 서울: 학지사
- 박하나, 장수미 (2012). 성장기 부모간 폭력폭력 경험과 데이트성폭력피해의 관계: 피해 여대생 음주행동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0(1), 149-176.
- 서경현, (2004).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가정폭력

- 피해와 데이트 폭력간의 관계에 대한 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9(1), 147-162.
- 서경현, 김봉진, 정구철, 김신섭(2001). 대학생들의 연애폭력과 예측변인. *여성건강*, 2(1), 75-98.
-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 서경현, 이경순 (2002). 데이트 폭력 경험자들의 분노, 정신병적 경향성 및 중독성.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7(13), 353-368.
- 서경현, 이영자 (2001). 고등학생들의 연애폭력의 예측변인.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7(2), 91-106.
- 송만익, 박상준 (2000). 대학생의 이성간 폭력에 관한 실태분석. *대전산업대학교 학생생활연구연구소*, 11, 165-190.
- 신혜섭 (2007). 데이트관계에서 신체적 폭력의 예측 요인: 여대생의 보고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19, 55-75.
- 신혜섭, 양혜원 (2005). 청소년 초기의 이성친구에 대한 신체적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청소년학연구*, 12(1), 300-324.
- 안귀여루 (2002). 이성교제 폭력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변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회*, 9, 55-75.
- 이은혜, 이초룡, 현명호 (2009). 데이트 폭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요인으로서 용서.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8(2), 385-403.
- 이정은, 현명호, 유제민 (2007). 폭력적 데이트 관계 지속에 관한 투자모델의 수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2(4), 983-995.
- 이혜원 (2015). 미혼여성의 데이트 폭력 경험과 대인관계문제, 우울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여성긴급전화1366 (2015). 2015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보고서. 여성긴급전화 1366
- 이화영 (2014).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여성의 관계 중단 과정에 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희숙,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폭력의 실태와 위험 요인들. *한국가족복지학*, 8, 179-204.
- 정윤주 (2008). '데이트폭력' 구성과 대응에 관한 연구: 20대 여성의 피해 경험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혜숙 (2007). 매맞는 여성의 떠날 수 없는, 머물 수 없는 이유. *사회복지연구*, 32, 269-298.
- 조현각 (2001). 대학생 이성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 가해와 피해의 특성을 중심으로. *성공회대학교 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의전화 (2009). 2009 아시아 여성네트워킹 포럼-아시아 3개국 데이트 폭력 설문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의 전화*.
- 한겨레 (2016. 3.15.). 안양서 실종된 20대 여성, 남자친구가 살해, 암매장.
- Beyers, J. M., Leonard, J. M., Mays, V. K., & Rosen, L. A. (2000). Gender differences in the perception of courtship abus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5(5), 451-466.
- Desai, S., Arias, L., Thompson, M., & Basile, K. (2002). Childhood victimization and subsequent adult revictimization assessed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women and men. *Violence and Victims*, 17(6), 639-654.

- DeKeseredy, W., & Kelly, K. (1993). The incidence and prevalence of woman abuse in Canadian university and college dating relationships.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18(2), 137-159.
- Follingstad, D., Wright, S., Lloyd, S., & Sebastian, J. (1991). Sex differences in motivations and effects in dating violence. *Family Relations*, 40(1), 51-57.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San Francisco, CA: Jossey-Bass.
- Henderson, A. J. Z., Bartholomew, K., & Dutton, D. G. (1997). He loves me; attachment and separation resolution of abuse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12(2), 169-191.
- KBS (2016, 4, 11.).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찾아가 흥기로 위협한 40대 구속.
- Lloyd, S. (1991). The dark side of courtship: Violence and sexual exploitation. *Family Relations*, 40(1), 14-20.
- Molidor, C., & Tolman, R. M. (1998). Gender and contextual factors in adolescent dating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4(2), 180-194.
- Painter, S. L., & Dutton, D. (1985). Patterns of emotional bonding in battered women: Traumatic bonding. *International Journal of Women's Studies*, 8(4), 363-375.
- Riggs, D. S., & O'Leary, K. D. (1996). Aggression between heterosexual dating partners: An examination of a casual model of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1(4), 519-540.
- Sabina, C., & Straus, M. A. (2008). Polyvictimization by dating partners and mental health among U.S. College Students. *Violence and Victims*, 23(6), 667-682.
- Simonelli, C. J. & Ingram, K. M. (1998).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men experiencing physical and emotional abuse in heterosexual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6), 667-681.
- Smith, J., & Williams, J. (1992). From abusive household to dating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7(2), 153-165.
- Stets, J. E. (1991). Psychological aggression in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Violence*, 6(1), 97-114.
- Strauss, A., & Corbin, J. (2001). 질적 연구 근거이론의 단계 (신경림 역). 서울: 현문사. (원전은 1998년에 출판)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Stroshine, M. S., & Robinson, A. L. (2003). The Decision to End Abusive Relationships: The Role of Offender Characteristics. *Criminal justice and behavior*, 30(1), 97-117.
- Vitanza, S., Vogel, I. C. M., & Marshall, L. I. (1995). Distress and symptoms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in abused women. *Violence and Victims*, 10(1), 23-34.
- Warshaw, C. (1998). Identification,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ith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In C. Warshaw & A. L. Ganley (Eds.), *Improving the health car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A resource manual for health care providers* (pp. 49-86). San Francisco: Family Violence Prevention Fund.

A study on the overcoming experience of women suffering from dating violence

Hyun-Jin Woo

Sook-Hee Jang

Hoin Kwon

Jeonju University

Recently in Korea, dating violence has become a rate of incidence is rising and a big problem in the society. The purpose of conducting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at the female victims of dating violence experience from the onset of the assault to the termination of the relationship.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seven female college students aged 19 and over who had been victimized by dating violence within the last three years, and the individual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on them. The main research questions were, "What are the experience processes of the female victims of dating violence?" and "What are the main driving factors in the experience proces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in-depth interview data by grounded theory approach, 95 concepts and 43 subcategories were derived from open-coding, and 17 categories were derived as a final result. The central phenomenon experienced by women suffering from dating violence appeared to be 'trapped in a snare of violence'. They were found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breaking up with the perpetrator, trial, tightrope, recovery, and the growth phase. In addition, negative perceptions of parental relationships, confinement due to psychological and economic dependence, and perceived relationships with perpetrators as beloved experiences were risk factors in experiencing violence. Internalizing the cause of violence, self-harm and attempting suicide seemed to be obstacles to disconnection from the perpetrator, but the confrontation with the reality and the help of the external support system helped. This study suggests the implications for victims' intervention by looking at the process of dating violence experience.

Key words : dating violence, victims, victimized experience, grounded theory, recovery